

정부기관소식

» 농림축산식품부

도축산업을 선도해나갈 거점도축장 추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10년 11월)에 따라 국내 도축산업을 선도해나갈 거점도축장으로 2개 업체를 추가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거점도축장은 (주)축림(전북 익산), 농협중앙회부천축산물공판장(경기 부천)이며, ‘11년과 ‘12년 3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1개소를 포함하면 전국에 13개소의 거점도축장이 선정된 것이다.

* 거점도축장 선정 현황(13개소)

도드람엘피씨공사(경기 안성), 농협중앙회부천축산물공판장(경기 부천), 팜스토리엘피씨(충북 청원), 농협중앙회음성축산물공판장(충북 음성), 사조산업(충남 천안), 논산계룡축협식육유통센터(충남 논산), 농협목우촌김제공장(전북 김제), 축림(전북 익산), 롯데푸드(경북 김천), 농협중앙회고령축산물공판장(경북 고령), 부경양돈농협김해축산물공판장(경남 김해), 영남엘피씨(경남 창원)

거점도축장을 선정하는 목적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고,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도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거점도축장은 현재 도축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향후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통합경영체로 발전할 가

능성을 갖춘 도축업체를 말하며,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관련 협회 등 대표자 8명으로 구성된 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업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4차 공모(‘13.6.18.~7.9.)에는 전국에서 8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7월부터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도축장의 위생수준과, 시설구조, 경영관리 능력 등 3개 분야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2개 업체를 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거점도축장에 대해서 도축시설 현대화 자금과 운영자금 등 정책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거점도축장이 도축뿐만 아니라 가공유통까지 일관 처리하는 통합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연간 예산 1,500억원 활용

앞으로 거점도축장이 전국 20개소 수준으로 배치될 때까지 공모를 계속하고, 선정된 거점도축장에 대해서는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거점도축장 취소 및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쓰는 한편, 위생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특화된 건실한 도축장과 거점도축장이 조화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13년 전국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도축장 안전위생

수준 향상과 HACCP 운용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도축장 135개소(포유류 80개, 닭오리 55개)를 대상으로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는 실효성 및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며 평가는 도축장 인프라, 위생관리 및 미생물검사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도축장 시설기준 준수,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병행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

*** 평가반 : 농식품부(검역본부), 지자체, 소비자단체 각 1명, 총 3명으로 구성**

농식품부는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도축장 평가등급을 상·중·하로 분류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상등급 도축장에 대하여는 도축장 시설 개선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축산브랜드 업체가 HACCP 평가 상등급 도축장 이용을 많이 하도록 우수축산물 브랜드인증(소·돼지) 업체평가지 가점을 부여하며, 하등급 도축장은 위생점검 강화 및 기술지도 실시로 실질적인 위생수준을 개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통하여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위생수준과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對 중국 국경검역 협조체계 구축 및 동물약품 수출활성화 계기 마련

박용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은 2013.10.17~20(4일간) 중국(북경)을 방문하여 중국의 국경검역 실태파악 및 북경공항검역국을 시찰하고, 농업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동물약품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한편, 제 11차 WCAP2013(세계축산식품안전포럼)에 참가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축산식품의 안전성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중국 북경공항을 시찰하면서 입·출국자에 대한 국경검역 및 탐지견의 운영 실태를 보고받고, 한·중 양국간 탐지견 경진대회 등 검역기술의 상호교류를 통한 기술력 향상에 합의하였다.

한편, 동물약품의 대중국 수출 증진을 위해 농업부 관계관을 면담하여 한국 동물약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한국 동물약품수입 인·허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간 정보 및 기술교류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정부 관계관을 초청하고 주기적인 기술교류를 통한 협력방안을 집중협의 하고 후속조치를 추진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 농업부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동북아방역체계구축을 위해 한·중 가축질병 정례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협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양국이 협의 추진기로 하였다.

박용호 본부장은 제11차 WCAP2013(세계축산식품안전포럼) 대회에 참가하여 “대한민국의 축산식품 안전관리” 기조연설로 한국축산식품의 안전성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였고, 포럼에 참석한 국제적인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 WCAP(세계축산식품안전포럼)은 5년마다 개최되는 가장 권위적인 학술대회이며, 전세계 80여 개국 2,0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

이번 중국 방문은 세계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축산식품 안전성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 정부기관소식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구 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동물질병의 동북아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동물용의약품 기술 관련 연구·토론회 주기적 개최 및 인적교류 등을 통하여 동물용의약품의 대중국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차 백신검정 국제교육 프로그램’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선진화된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 알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차 백신검정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지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소재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 유통 전 철저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백신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의 국가출하승인 품질관리 담당자 등 총 8명 참가) 주요 교육 내용은 ▲국내 국가출하승인 및 품질보증제도 교육 ▲무균시험 원리 및 시험법 ▲정제 Vi 장티푸스백신 시험법 ▲분자량, 다당류 함량 시험법 ▲치메로살함량 시험 원리 및 시험법 ▲국내 백신 제약기업 견학 등이었다.

참고로,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하는 ‘생물의약품 표준화분야 세계보건기구 협력

센터’로 미국(FDA/CBER), 영국(NIBSC), 일본(NIID), 호주(TGA)에 이어 5번째로 지정되어 아시아지역의 백신 등 품질관리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국가검정 시스템의 국제 기준을 충족하여 ‘WHO 위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퀵셈주’ 등 7개 국내 제조 백신의 수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WHO 위탁시험기관: WHO가 유니세프 등으로 납품하는 백신의 품질적합성 평가를 위해 시험 등을 위탁하는 기관)

안전평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백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백신의 제조, 품질관리 기술력을 홍보하여 국내 백신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축산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eKAPEPIA 전면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축산관련 모든 정보를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eKAPEPIA(www.ekapepia.com)가 10월 7일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12년 7월에 오픈한 eKAPEPIA가 다양한 편의기능 및 신규서비스를 도입하여 많은 이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 eKAPEPIA 평균 일일방문건수 : 인터넷 7천여명, 모바일 6천여명)

새롭게 오픈한 eKAPEPIA 홈페이지의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도매시장 경락가격 등 가격·통계 조회기능에 가격 변화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

록 그래프를 추가하였고, 통합검색기능을 도입하여 사이트 내의 본문 및 첨부파일의 내용까지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가능토록 하였다. 또 유럽, 오세아니아 등 각 대륙별 축산동향 및 축산관련 주요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정부 3.0 개념의 정보개방·공유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출하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등급판정(소, 돼지) 성적을 타 지역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에 인터넷 기반에서만 제공되던 '학교급식 축산물납품 검수시스템'을 스마트폰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학교급식 축산물납품 검수시스템 : 영양사 및 학부모가 각 학교에 납품한 축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축산물품질평가원 허영 원장은 'eKAPEPIA의 개편을 통하여 축산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더욱 높이는 정보창구로서의 역할과 축산정책 및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켜 국내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누에 이용 사료첨가용 천연항생제 개발

누에를 이용해 가축의 면역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료첨가용 천연항생제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누에 면역반응 유도 기술을 이용해 강력한 천연항생물질을 지닌 누에를 대량 생산, 이를 분말 형태로 만들어 닭의 사료에 섞어 먹일 수 있는 항생제 대체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누에에는 병원균이 침입하면 강력한 천연항생물질인

항균펩타이드를 대량 생산해 몸을 방어한다. 이에 병원균 성분을 인위적으로 누에 몸에 넣으면 천연항생물질을 생산할 수 있지만, 병원균에 의해 질병을 일으키거나 독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왔다. 이번에 개발한 누에 분말 천연항생제는 이러한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이나 가축에 유익한 유산균에서 펩티도글리칸이란 성분을 뽑아내 면역유도제를 만든 다음, 이를 누에 복강에 주사해 면역반응을 활성화시켜 강력한 항균펩타이드를 대량 생산한 누에를 이용해 만든 것이다.

이 누에 분말 천연항생제의 생산성 효과 실험에서 기존 닭사료에 0.01%를 첨가해 5주간 먹인 결과, 항생제 무첨가군과 비교해 체중은 3.7%(2,202g→2,280g) 늘어났으며, 체중 1kg 증가에 필요한 사료섭취량은 4.5%(1.79kg→1.71kg)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0.05%를 첨가해 먹었을 때는 좀 더 효과가 있어 체중은 5.2%(2,202g→2,313g) 증가했고, 사료섭취량은 6.2%(1.79kg→1.68kg) 줄어들었다.

면역력 효과 실험에서는 누에 분말 0.01% 첨가군이 항생제 무첨가군과 비교해 맹장 내 대장균은 4.3%, 살모넬라균은 9.8% 감소했고, 간과 신장 손상시 증가하는 혈액생리지표인 총단백질과 아스파라긴산 아미노전이효소(AST, aspartate aminoreansferase)는 각각 2.7%, 10.4% 줄었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중 하나인 코티졸(cortisol) 함량도 37.2% 감소했으며, 혈액 내 총항산화 활성은 1.38% 증가했다. 누에 분말 0.05% 첨가군도 항생제 무첨가군과 비교해 대장균 5.5%, 살모넬라균 15.6%, AST 8.8%, 코티졸 41.8% 각각 줄었으며, 총항산화 활성은 1.86% 늘어났다.

이에 따라 누에 분말 천연항생제를 사료에 첨가해 먹었을 때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0.01% 첨가 시 육계 한 마리당 105원의 수익이 발생해 육계 5만수

» 정부기관소식

사육 농가에서 연간 6회 먹일 경우 3,150만 원의 수익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0.05% 첨가 시에는 누에 분말 구입비용 증가로 인해 육계 수당 수익이 4원 늘어나 연간 120만 원의 수익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사료첨가용 누에 분말 천연항생제 생산기술에 대해 지난 6월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산업체에 기술 이전해 조기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김성렬 연구사는 “2011년 7월부터 가축의 사료첨가제로 항생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가축의 면역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항생제 대체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누에 분말 천연항생제 개발로 육계농가의 수익증대는 물론 누에 소비량 증가에 따른 양잠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 국립산림과학원, 양해각서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장원경)과 산림청(청장 신원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산지축산 활성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등 정책적 기술수요 발생에 따라 10월 4일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산지축산 모델 개발 TF팀 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산지축산 개발에 필요한 연구와 제도 등 산림청과 협업을 통한 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두 기관은 지난 8월 산

지축산 관련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해 협업주제를 논의한 바 있다. 협업 주요내용은 산지축산 개발과 관련된 산림·축산자원 활용기술 개발, 국정과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처, 상호협업에 의한 지원사업 등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산림과 축산의 협업을 통한 창조적 기술개발에 앞장서 농림축산업 발전과 국민행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13년도 3차 자체HACCP연구회 및 가축사육단계 HACCP 담당자 정기모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은 10월 4일(금), 자체HACCP연구회 및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소속 HACCP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모임을 중부지원(대전)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올해 3번째로 실시하는 가축사육단계 HACCP담당자 정기모임은 예당한우영농조합법인의 이승열 회장,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이광용 과장, 청풍명월클러스터사업단의 이인형 부장 등 총 1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준원은 최근에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령과 통합인증관리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어 예당한우영농법인 최병수 부장의 법인 현황 소개 및 농장 친환경인증과 HACCP 지도 사례발표 등이 이어졌다. 이후 진행된 토론 시간에는 농장의 현안사항인 수의사 처방제와 축사 운영 시 퇴비처리방법에 관하여 논의가 실시되었다.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 각 축협별 운영 현황 및 대책 등을 상호간 교류·공유하였으며, 이어 기준원의 퇴비처리 관련 법령 소개 및 농장

HACCP 심사시 퇴비처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소개 등이 진행되었다.

기준원 관계자는 “HACCP 담당자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부조직 개편 이후 변화되는 각종 정책 정보 및 법령 개정 사항 등을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HACCP 운용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베트남 콤팩트와 MOU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김재수)는 9월 30일 우리 농식품의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베트남내 최대 유통매장을 보유한 대형유통체인인 콤팩트와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콤팩트는 1989년 설립 이후 2013년 현재 62개 매장을 운영하며 연간 10억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 현지 시장 점유율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15년까지 총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양측은 앞으로 베트남 최대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향후 베트남 진출이 유망한 한국식품에 대한 종합판촉 행사 개최 지원은 물론 유통품목, 현지 유통정보 교환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우리 농식품 제4위의 수출시장으로서 2012년 338백만불이 수출되어 2011년 275백만불 대비 23% 증가하는 등 신흥 주력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민 방문과 더불어 양국간 경제협력이 전략적으로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박종서 aT 식품수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

을 통해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의 대표적 한류 마켓인 베트남 시장에 안정적인 초대형 공급망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하여 우리 농식품이 베트남 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

남북 축산 협력방안 심포지엄 개최

농협은 지난 10월 4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남북 축산 협력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농협관계자는 “국내산 축산물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북한의 식량난 해소 등 통일시대를 대비한 중장기적 축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상생 협력방안(전성훈 통일연구원장) ▲남북 농축산업 교류협력 성과와 대안(KREI) ▲북한 축산업 실태(서학철 前 함경남도 축산지도소장) ▲지속가능한 축산 상생협력 방안(농협경제 연구소)에 대하여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축산분야 남북협력 비즈니스 모델 방안 등에 대하여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견들이 다양하게 개진될 예정이다.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는 “축산물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북한주민의 영양소 결핍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식량자원”이라며 “우리의 우수한 축산 자원을 바탕으로 축산분야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미래통일시대를 대비한 식량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